95
3 - AUG - 9
Copy ____ 1960

활살

4

시사만화잡지

1956·4 (65)

경축 조선 로동당 제3차 전당대회

리영춘 그림

보는 일과 듣는 말

『서울신문』 기자 한 정기의 조그만 노트를 들쳐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누구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그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남조선 『정부』의 어용 신문인 『서울신문』의 현역 기자라는 것을 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노트를 한장 한장 번져 보기로 합시다.

× × ×

"나는 참 날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된다. 웃다가도 울 일이며… 울다가도 우스운 말들을… 오늘은 『문교부』에 가는 길에 리 군을 만나 다방 "장미궁"에 들렸다. 언제 보나 다방에는 자칭 문화인들과 뿌로카들의 홍수다. 한편 담배며 껌을 팔려고 드나드는 남녀 고학생들은 꼬리를 물고… 리 군이 한 소녀한테 졸리다 못해 주머니를 툭털어 담배를 한갑 사면서 말했다. 『한 군! 이거야 눈뜨고 볼 일인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껌을 팔려 헤매고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팔다가 죽고 또 『병역 징집』 등살에 자살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래도 학교들에선 학생들한테 『공납금』만 짜내여 고리 대금업의 모리 행위만 하는 판이니 어찌 학생들이 이런 정책을 반대하여 싸우지 않겠나… 요지음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문교부엔 말성도 많다"고 떠도는 말이 우연치 않단 말일세…』 나는 리 군과 헤질 적에 악수를 하면서 말했다. 『리 군! 함부로 말하다간 『불온』의 락인이 찍히네』 리 군은 힐죽 웃으면서 돌아섰다.

× × ×

벌써 며칠째 비가 온다. 『보건 사회부』에 들린 나는 『실명용사』 한 사람을 만났다.

『야— 이 비를 무릅쓰고… 딱한 일이로군』 하고 내가 무심코 말하자 그 『실명 용사』가 큰 소리로 웨쳤다. 『허— 누군지는 몰라도 인정 있는 말을 하는군… 무어 직업을 알선해 준다더니 전쟁에 끌려나가 눈까지 잃은 놈을 벌써 몇달째나 오라 가라고만 하니 이거야 견디겠소. 글쎄 어북하면 이 비를 맞고 눈 없는 놈이 찾아왔겠소? 보시요. 나는 『실명 용사』가 되여 보지는 못하오만 여기 모인 『상의 용사』 『전사자 유가족』까지… 이런 저런 감언 리설로 속여 먹는 『보건 사회부』를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소? 좌우간 "한다! 된다! 준다!고 말 뿐인 『보건 사회부』란" 말이요…』 나는 그만 기가 질려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던지고는 사람들 속을 뚫고 열린 안으로 들어갔다.

× × ×

오늘은 『상공부』에 취재를 갔다 오다가 뜻밖에도 명숙 양을 만났다. 내가 『상공부』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말하니 명숙 양은 『한 선생이 좋은 수가 있는게로군요』 하고 시치미를 뚝따고선 말했다. 『수라니? 내게 무슨 수가 있겠소』 하고 나는 픽 웃었지만 명숙 양은 그냥 놀려댔다. 『왜요… 광산은 "국제 입찰" 공장은 "불하"하고 유·에스·에이 잉여 상품 "무역"만 하는 『상공부』엔 뿌로카 사태가 났다는데요』 나는 어이가 없어 『누굴 뿌로카로 아십니까』 하고 말했지만 명숙 양은 『아이 참… 그렇다는게 아니라 "팔다 팔다 거덜이 나서 실업자만 "생산"하는 『상공부』라"고들 하니 많은 자료가 있을거라는 거죠』 하고 웃었다. 명숙 양은 역시 익살쟁이거던…

× × ×

모처럼 『합동 통신』의 박 군을 만났다. 박군은 군사 전문 기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자적인 흥미를 가지고 물어 보았다. 『박 군! 그 면에서의 새 소식은 없나?』 박 군은 별건 없다는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글세 있다면 『국방부』엔 특히 우화나 기담이 많은 곳이라고나 할가… 이를테면 "어쨌던 갔다!"란 우화가 있지… 왜 작년 3·1절에 『대통령』께서 1956년 3·1절까지는 『평양 입성』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평양에 간 것은 전쟁을 반대하여 입북한 숱한 탈주병들 뿐이란 말야… 그래 『북진 전쟁』이란 말을 비꼬아 사병들 가운데서 돌고 있는 말이라네…』

× × ×

오늘은 대학 동창인 김 군을 만나 한잔 먹으면서 담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북조선에선 놀라우리만큼 많은 성과를 자랑하는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 로동당 3차 전당 대회를 한다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정말 놀라우리만큼 암담한 전쟁 분위기 속에서 세번째 『대통령』 선거인지 무언지 한답시고 물고 뜯고 차면서 "비렁이 자루 찢듯"하는 감투 싸움 등살에 백성들만 들볶이우는 판이니 이 얼마나 한심한 세상인가!』 평화와 전쟁—하기야 평화 애호자는 번영하고 전쟁 도발자는 멸망하고… 문제는 뻔하지 않은가!"

김 동 희

행복은 해마다

—더 젊어진 것 같소…
—옷감이 더 좋아졌기 때문야요

백인균 그림

공화국의 국가 예산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 부동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 인민적 예산의 정확한 실행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더욱 파멸에로

백인균 그림

—어서 이 군복을 입어라
—이 애에게 필요한 것은 군복이 아니다!

리 승만 괴뢰 정부의 소위 『균형 예산』이란 것은 어데까지나 발광적인 전쟁 준비와 인민 탄탈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억압과 착취만이 가심해 지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급격히 령락되고 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가라!

홍 두 원

『여보게, 집에 있나?』

밖에서 찾는 소리가 나자마자

『자네 잘 왔네, 어서 들어오게』

하고 주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채 보선발로 뛰여 나가 반갑게 맞아 들이는 손님도 있고

『댁에 계십니까? 저예요, 잠간 뵙자고 왔습니다』

하고 대문을 흔들어도

『쳇 저 자식 또 왔군』

하고 주인이 이맛살을 찌프리며 대답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손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신발채로 방안에 들어와 잠든 주인을 발길로 깨워서는 흉기를 내대고 자유를 구속한 후 금품을 강탈하는 이른바 『밤 손님』도 있다。

남조선에 기여 든 미국인들은 자기를 조선 인민의 『벗』으로 또는 『손님』으로 가장하려 하지만, 그들이 『밤 손님』 이외의 다른 어떠한 손님도 아니란 것은 명백한 일이다。

남조선에 기여 든 미국인들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유린했으며, 남조선 경제를 질식시키고 남조선 인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략탈하고 인명을 함부로 살상했으며 지금도 흉기를 내둘러 전쟁 분위기로써 조선 인민을 위협하고 있다。이런 자들이 어떠한 부류의 『손님』이겠는가는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그들의 심지를 엿볼 수 있는 례를 한 둘 들어보자。미군이 남조선 인민들의 재산(토지 건물 물자 등)을 사용한 그 료금은 리 승만 도당이 헐값으로 계산한 자료에 의하드래도 637억환 이상이며, 그들이 사용한 전기만 하여도 45억 7천 여 만환어치 이상에 달하고 있다。그런데 인민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리 승만 도당이 형식적으로 전기료를 청구하였을 때 미국인들은 코웃음을 쳤다。도적놈 보고 물건 값을 내라는 자가 어리석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또한 최근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경기도 부평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121 륙군 야전 병원 소속 병사 제빗트 외 9명은 각기 권총 단도 도끼 쇠망치 몽둥이 등을 들고 신촌 거리에 나타나 행인에게 닥치는대로 폭행을 가한 다음 부평동 283번지의 두부 공장에 침입하여 작업 중인 로동자 장 길종을 무조건 란타하고 또 다른 로동자 김 영철의 왼쪽 귀를 잘라내였으며 다시 민가에 침입하여 가즌 행패를 다하였다。

세계의 어떠한 제도의 어떠한 나라이나를 막론하고 이러한 행동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는가? 오직 『밤 손님』 곧 강도들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행동이 아닌가?

남조선에 기여 든 미국인들을 조선 인민만이 『밤 손님』으로 부르고 있을 뿐만이 아니다。이상에서 례를 들은 극히 조꼬만 단편적인 실례에서도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로 자기들이 침략자이며 략탈자이며 강도라는 것을 그들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강도에 대한 주인의 의사는 명백한 것이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주인으로서의 결의를 보여 주었으며 지금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가라。

쓸 데는 많은 데 차츰 쓸모가 없어지는구나!

송용남 그림

미제는 남조선 인민을 착취 략탈하기 위하여 그 도구로서 괴뢰 정권을 조작해 놓았고 조종해 왔지만 날이 갈 수록 리 승만 도당이 점점 더 고립화 됨에 따라 미제의 계획은 점점 파탄되여 가고 있다。

일제대신 미제강도
리승만을 업고와서

우리조선 남쪽땅에
괴뢰정부 조작하고

테로통치 략탈정책
악랄하게 감행하며

괴뢰도당 내몰아선
전쟁준비 광분하여

쌍라팔 부는 리 승만

—아이고… 『4사 5입』의 비상 수단을 써서까지 『개헌』을 해 놓고 『종신 대통령』을 하잿더니… 나를 매국노다 팟쇼 독재자다 하고 욕사발을 들씌우면서 『대통령』 감투를 뺏을려는 놈들이 많아 죽을 걱정을 했는데… 옳지! 옳지! 미국 상전의 지시대로 이번엘랑 놓아라— 당겨라고 쌍라팔을 불면 되겠구나— 『자—나는 『대통령』 립후보를 절대 거부한다! 그렇지만『민의』에 의하여 나를 또 『대통령』 립후보로 『추대』 해 준다면 결사적으로 추종하겠다! 『민의』를 발동해다오! 글쎄 내 나이 80이 넘었으니 『대통령』을 하면 이번 밖에야 더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종신 대통령』을 못하게 되면 미치기라도 할 것 같은 나의 이 심경을 알아 달라!』 라고… 리 승만은 사실상 자기에 대한 지명을 강요하는 졸렬한 연극을 하면서 『대통령』 3선을 위하여 미처 날뛰고 있다。

상전 장단에 통소 부는 량 유찬

—리 승만이『종신 대통령』을 해야만 나도 잘하면 『부통령』을 하겠고 잘 못돼도 『주미 대사』를 그냥 하겠으니 미리부터 서둘러야겠구나。 『백악관』의 북안대로 제때 통소나 불어 리 승만을 저주하는 민심을 『회개』시켜 보기로 하자— 『이거 큰 일이 났다。만일 리 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할 것이다』라고 리 승만의 『대통령』 3선을 위하여 제일 먼저 목이 타게 떠들어 댄 것은 워싱톤에 가서 사환군 노릇을 하고 있는 『주미 대사』 량 유찬이였다。

리 기붕의 『민의 발동』 무당굿

—아하 이거 큰 야단 났군! 『자유당』원들까지 리 승만을 배반하는 것은 위원장인 내 잘못도 있는데… 좌우간 리 승만은 그렇듯이 생 짜증을 내면서 『대통령』 립후보를 거절한다는 변덕을 부리는 등 제 말은 주인공 역을 멋지게 놀고 있는 데 이판에 내 맡은 역이 잘 못되면 『부통령』 꿈도 허사가 되겠구 『자유당』 위원장이나 『국회』 의장 자리도 다 해 먹겠다。 어서 빨리 미국의 『각본』 대로 『민의 발동』무당굿을 꾸며 떠들석하게 징을 처야만 나의 충성을 알아 줄게 아닌가— 『자— 어서 『자유당』에선 앞장 서고 『대한 로총』 『농민회』 『애국 단체 련합회』 『대한 상공 회의소』 들에선 『대회』를 열어 리 승만을 『대통령』 립후보로 『추대』 하는 『민의』를 발동해라! 미국의 신임을 받는 리 승만이 없으면 『한국』의 정치 정세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리 승만의 가장 충실한 졸개 리 기붕은 『민의』 발동에 몽이 달아 나섰다。

『번의 촉구』 피리 부는 김 형근

—어떻게나 리 승만이 『대통령』3선을 해야만 미국 상전 앞에 『내무부 장관』 으로서의 체면도 서겠는데… 제길 기왕 목이 타게 불던 피리인데 어디 악을 쓰고 불어보자— 『리 승만의 『대통령』 출마를 요청하는 혈서를 써내라! 『시민증』 에다 『애국자』 라고 기입해 줄테니 『국민 데모』에 참가하라! 용감한 테로들이여! 선량한 걸인들이여! 어여쁜 『양공주』 들이여! 『참가증』을 받아라 데모에 참가하라!』고… 『공보 실장』 갈홍기와 더불어 『내무부 장관』 김 형근도 인민들을 강제 동원시켜 소위 리 승만의 『번의(마음을 돌리는 것)촉구』를 위한 기만극의 앞장에 나섰다。

허겁 지겁 북 치는 손 원일

—내가 『국방부 장관』을 하게 된 것도 리 승만의 덕이요 『원면』이며 『화랑』 담배 뿌로카로써 돈 벌이를 한 것도 리 승만의 덕인데… 내 역할이 미약해선 말이 아니지 엣다 모르겠다 미국의 지시가 있는 바에야 꺼릴게 무어 있나… 리 승만이 웨치던 『북진 통일』 구호나 복창하면서 한몫 끼자— 『자 미국이 절대 지지하는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 해야만 『북진통일』을 할 수 있다! 『평화 통일』 말만 들어도 통곡하는 리 승만의 심정을 알아서 『대통령』 으로 『추대』 하자!』고… 『국방부 장관』 손 원일도 개구리 장단에 올챙이 춤추듯이 리 승만의 『대통령』 3선을 위하여 허겁 지겁 북을 쳤다。

덜레스의 3차 『왕진』

홍종호 그림

제1차

—빨리 북진 전쟁을 일으켜라!
네 뒤에는 미국이 있으니…

제2차

—아이구 이것아 용기를 내라!
미군을 영구 주둔시킬테니…

제3차

—이 웬 꼴이냐 내 가슴이 탄다!
이걸로 어서 북진 기세를 돋구라…

박승히 그림

남조선에 기아질병
생지옥을 만들고선

북조선도 먹겠다고
침략전쟁 감행타가

조선인민 위력앞에
개코망신 당했건만

괴뢰시켜 북진하라
발광하여 호통치네

『험악한 거리』

충청북도 보은 산골에서 농사를 하는 박 로인은 딸네집을 가기 위하여 서울에 왔다. 어슬막 해서 서울역에 내린 박 로인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소란스러운 역전 광장을 겨우 벗어나 남대문 통을 따라 걸어갔다. 갑자기 『아이구 저런…』 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숱한 사람들이 우루루 길 한 켠으로 몰려갔다. 박 로인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발길을 멈추고선 그쪽을 바라보았다. 미군놈이 쩝차에 탄채로 쭝얼거리며 내다보더니 『까뗌!』 하고는 짓씹던 껌을 틱 뱉아버린 후 휘파람을 휘— 불면서 으쓱 어깨짓을 했다. 그리고는 얼른 쩝차를 내몰아 쏜살 같이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저런 개놈들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소리쳤다. 알고보니 거침없이 내달리는 미군 자동차에 어린 학생이 깔리여 죽었는 데 그 미군놈은 제 알 바 아니라는 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사라지고 만 것이였다. —허 참 시골이나 서울이나 개놈들 판이로군—하고 생각한 박 로인은 자기도 잘못 걸리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에 싸여 왕십리 쪽으로 가는 길을 물어가며 딸네집 찾기를 서둘렀다. 가로등도 켜지 못한 거리는 벌써 캄캄한데 갈길은 설고 멀어서 더욱 맘만 급해진 박 로인은 이리저리 헤맨 끝에 왕십리로 나가는 거리를 가까스로 찾아서 걸어갔다. 그런데 뒤에서 『이리 왓』 하고 삽살개 짖는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키가 장승 같은 미군 두 놈이 어느새에 쫓아와선 서로 먼저 끌어 안으려고 덤볐다. 박 로인은 까닭을 몰라 『아냐 아냐…』 하고 뿌리쳤지만 짐승마냥 싸다니다가 어둠속에서 희끔한 조선 옷을 보자 녀자로만 알고서 미쳐 달려들었던 놈들은 흉물스럽게 히히 웃으면서 이번에는 로인의 수염을 잡아 흔들려고까지 행패를 부렸다. 『웬 천하에 못된 야만놈들 같으니…』 하고 박 로인이 추상 같은 꾸중을 하자 그제서야 두 놈은 휘파람을 불면서 물러갔다. 박 로인은 불의에 당한 봉변을 생각하면 할 수록 —그 미군놈의 목아지를 비틀어 놓아야 했을걸—하고 분해 하였다. 사실 년세는 많았지만 농사 일로 단련된 박 로인은 엿차 막다다르면 미군놈 한 둘쯤은 해낼만한 힘이 있었다. 이래저래 시간만 늦어지고 보니 박 로인은 조급한 생각을 금치 못하여 걸음을 빨리하는 데 이번엔 또 『누구엿 쏜다!』 하고 파출소 순경이 고함을 쳤다. 벌써 통행 금지 시간이 된 것이였다. 순경놈들은 박 로인을 파출소 안에다 불러들여선 온갖 실갱이를 다 하더니 『령감 좋은 수가 있소 "혈서"를 한장 쓰오 그러면 래일 아침에 우리가 딸네집도 찾아 줄테니…』 하고 얼리였다. 『혈서를 쓰라니요?』 박 로인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었다.

『리승만「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한다! 고 말이요. 그러면 정말 애국자 대우를 받게 되오…』 순경놈은 종이 한장을 내밀면서 능글스럽게 웃었다. —무슨 개수작들이냐—고 직각한 박 로인은 일부로 『난 글을 쓸 줄 모릅넨다』 하고 딱 잡아떼여 대답했다. 『그러면 리「박사」의「대통령」립후보 출마를 탄원하는 이 련판장에 도장을 찍소』 하고 순경놈들은 재차 강요했으나 『난 도장도 없습니다』 하고 또 거절을 했다. 이때 전화가 걸려 온걸 순경 한 놈이 받더니 『마침 잘됐군!』하고는 박 로인을 비롯하여 네댓명이나 되는 『통행 금지 위반자』 들을 둘러보고서는 저이들끼리 무언가 숙덕거리였다. 결국 이날밤에 박 로인은 다른 남녀들과 함께 순경들한테 강제로 이끌려 『경무대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가게 되였다. 기껏해야 몇십명쯤 되는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선 기마 순경까지 동원되여 감시를 하면서 리 승만을 『대통령』 립후보로 『추대』 하기 위한 철야데모를 감행하자는 판이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캄캄한 속에서 『아이고 사람 죽겠다』 하고 신음 소리를 내는가 하면 『더러운 수작도 다하지, 어디 언제까지나 지랄 치는가 좀 해보잔 말야…』 하고 격분에 찬 소리로 수군거리기도 하였다. 박 로인은 서울 와서 당하는 일이 너무도 기가막혀 땅바닥에 주저앉아선 담배만 여나무대째나 피우고 있노라니 훤하게 날이 밝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녀자가 박 로인을 보자 『아니 아버지께서 이게 웬일이서요』 하고 깜짝 놀래면서 급히 다가왔다.

바로 박 로인의 딸이였다.

『내야 널 보려고 서울에 왔다가 이꼴이다만 너는 어째 왔니?』

『아버지! 공장에 다니던 큰 애가 파업을 하다가 주목을 받고 피해 있는데 만나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끌려오질 않았겠어요』 딸은 박 로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촌 장날 파장할 때처럼 군중들이 이리 새고 저리 빠지는 틈에 끼여 딸과 함께 광화문거리까지 나온 박 로인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날이 밝는구나… 에 참 험악한 거리로다!』

『아버지 인제 곡 보시게 될꺼야요 조국이 통일되고 이 험악한 거리가 정말 깨끗하게 밝아질 날을…』 딸은 박 로인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김 동 희

숨통은 막아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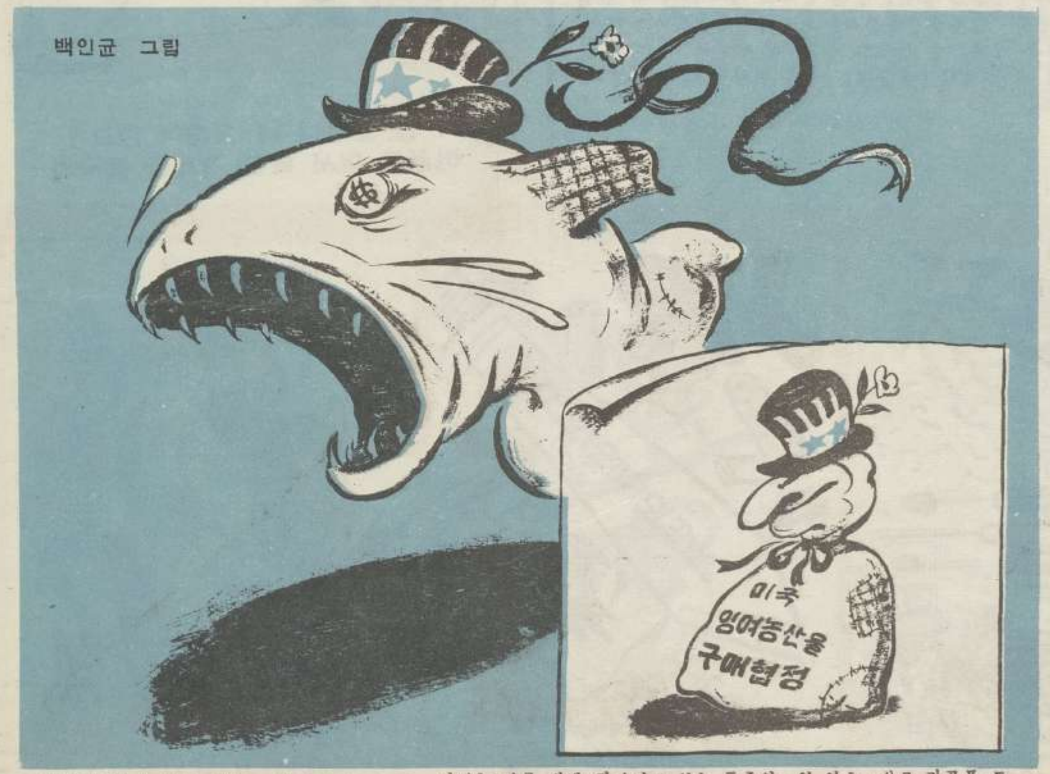
미제의 예속화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의 산업 생산량은 날로 축감되고 있는 바 1955년에는 1954년에 비하여도 생산량이 다음과 같이 감소되였다 중석광 82%, 쎄멘트 79%, 고무신 59%, 모사 71%, 카바이트 76%, 전구 60% 등등。

그래도 『원조』라네

송용남 그림

어떻게 구매하는 협정인가?

백인균 그림



이렇게 몽땅 먹는 협잡이다!

미제는 자국 내에 퇴적되고 있는 통졸임, 엽 연초, 식료 가공품 등 방대한 잉여 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리 승만 도당과 『미 잉여 농산물 구매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남조선의 농업 생산에 대한 파괴 정책과 더불어 남조선을 미국의 잉여 농산물 판매 시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쪽집개 소식

어쨌던 『자유』라고

감투 싸움, 권력 다툼, 뿌로카 경쟁 등 남조선 괴뢰 도당들 가운데는 벼라별 『활동』이 다 류행이라 한다. 그런데 요지음 "어쨌던 『자유당』이란 말야…" 라는 말이 류행이라고… 이 말의 본의는 사기 횡령을 가장 멋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자유당』 —즉 리 승만 도당인데서부터 비꼬아 돌고 있는 말이라 한다. 그러니 남조선에서 "사기 횡령도 내 『자유』야"라고 빼젓하게 해 먹는 리 승만의 『자유당』 도배들과 "위협 강탈도 내 『권리』야"하고 거침 없이 행세하는 경찰들을 빗대고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조롱하는 말이 류행함도 우연치 않은 일…

『아동 교육 연구』를 위하여

남조선의 국민 학교 아동들이 공부 시간에 매 맞고 벌 서고 쫓겨 나고 하는 등 돈을 못내여 당하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강릉 국민 학교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 학교들의 『모범』을 따라 『아동 교육 연구』라는 미명 하에 돈 있는 집과 돈 없는 집의 아동들을 구별하여 학급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아동들 가운데서까지 "비로드반" "거지반"이라는 학급 명칭으로 통용한다니 이 또한 백인과 흑인의 인종 차별 뿐만 아니라 상전과 노예 관념을 뿌리 박는 "미국식 교육 정책"의 표본의 하나…

바람 과다증

남조선 신문에 의하면 "서울 한 복판을 활보하는 인형도 아니요 공작새도 아니요 원숭이도 아닌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미국식 생활 양식에 무젖은 지식 녀성들이 많다"고… 또한 "이러한 미국식 바람 과다증에 들뜬 녀성들은 고무 풍선과도 같이 떠오르는 힘에 남편들이 쥔 끈도 끊어져 달아난다" 고… 그런데 리 승만의 『특사』로서 『대미 외교』에까지 한 몫 끼는가 하면 녀류 『시인』이며 녀성 『운동가』랍시고 뽐내기도 하는 모 윤숙은 지난 1월 18일 『한국의 남성들은 도대체 남편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였다는 바 이야말로 미국식 바람 과다증…

죽음의 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량곡 수탈 정책에 의하여 벌써 수십만호에 달하는 절량 농가들의 참경은 형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남조선 신문들까지도 "국가 매곡에 응하지 않는 농가들에 강제 차압 선풍이 불고 있어 남은 것이란 기둥과 눈물과 한숨 뿐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굶어 죽고 자살하고… 갱생의 봄이라기 보다는 죽음의 봄이다"라고까지 썼다. 그러니 남조선 농민들이 "뜰기는 가을에 굶어 죽는 봄"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난 1월 22일 밤 8시경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조 금임(19세)은 극장 구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미군이 발사한 권총알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미군이 란포한 힐난을 하므로 겁에 질린 그 처녀가 달음질 치자 권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영어를 모르는 때시 미군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도리여 그 처녀를 욕하였다는 바 남조선은 일제가 남긴 『6법』에다 미국에서 수입한 『불법』과 『무법』까지 통용되는 『8법 천지』라고 말할 수 밖에…

—최근의 남조선 소식에서—

박승히 그림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있는 리 승만은 자기의 매국적인 정권 야욕과 팟쇼 독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통령』 립후보를 『거절』하겠다는 기만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한편 경찰, 테로 등 자기의 졸도들을 추동시켜 『민의 발동』을 조작하는 졸렬한 연극을 꾸미면서 지어는 선거일까지 예정보다도 근 2개월이나 앞당겨 결정하고는 강압 선거에 의한 『종신 대통령』을 획책하고 있다.

리 승만의 『대통령』 3막극 (원작 및 연출—워싱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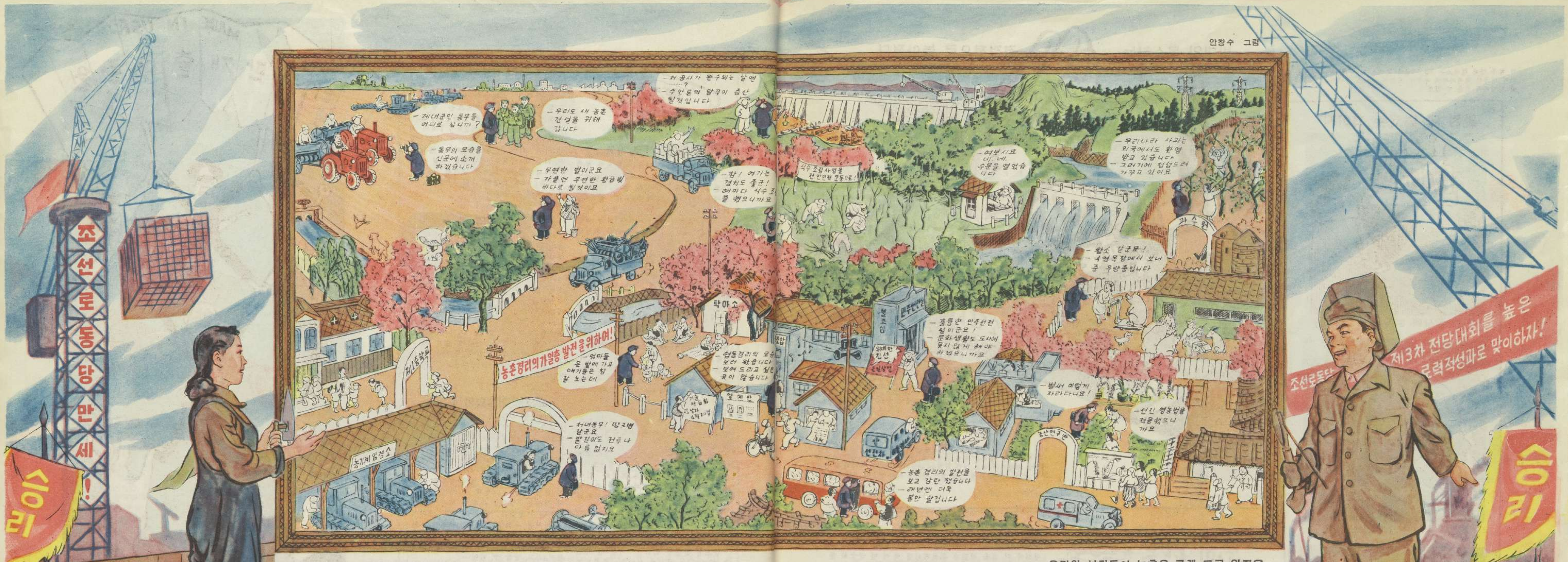
홍종로 그림

제1막
시대—1948년
배경—유·엔 『한국 위원단』 깃발
내용—단독 『정부』 수립

제2막
시대—1952년
배경—유·엔군 엄호 하의 계엄령
내용—전쟁 계속, 독재 강화

제3막
시대—1956년
배경—4사 5입에 의한 『개헌』과 미제의 비호
내용—『종신 대통령』과 테로 통치 강화

안창수 그림



—농촌도 참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성과들이 농촌을 크게 돕고 있지요

복남의 자랑

—우리집 식구는 열사람이야요
그런데 모두 무얼하는지 아세요?

리영춘 그림

…첫째 할아버지! 둘째는 할머니!

…세째는 아버지! 네째는 어머니!

…다섯째는 누굴가? 음 삼촌이 있구나!

…그리고 여섯째는 큰 형님이고

…일곱째는 큰 누나인 데 모범 로동자래요

…여덟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사가 된 적은 형님이고

…아홉째는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쁜 적은 누나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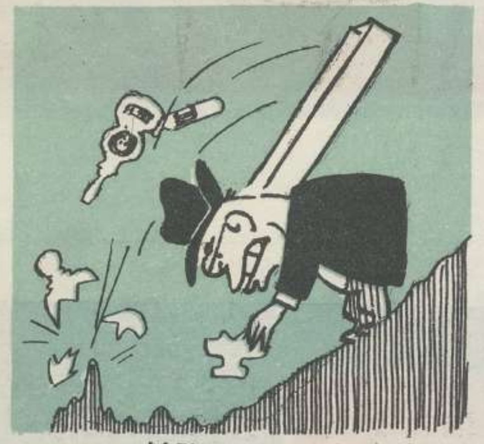
…아니 열째는 누굴가? 오라 참 나를 빼놀번 했군요

미 국무 장관 덜레스는 3월 23일에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을 통하여 미국이 아세아에서 추구한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치는 격이지

—이번 장사에 얼마나 남으려나?

—이크 하느님!



—봉창에 망했군!

장진광 그림

…미련에 눈이 어두워…

반대의 목소리는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장진광 그림

미제 침략자들은 마샬 군도와 북태평양에서 제멋대로 37만 5천 평방마일에 달하는 수역을 위험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수소탄 시험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을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 및 전세계의 평화 유지와 국제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한 귀중한 기여로 된다.

덜레스의 려행

김 현 석

카라치 회의에서 오창 륙부가 타올라 여송연 통이나 허비한 덜레스는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향했다.

『요새 와선 우리 미, 영, 불 3위 일체에도 이렁궁저렁궁 말이 많아 졌단 말이야 군사적 면에 보다 경제적 면에 일차적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고… 불란서의 피노는 역시 예상 그대로 비위에 맞지 않는 작자야』

카라치는 바로 인도의 문 밖이라 파키스탄 령공을 오래 비행할 필요는 없었다.

× × ×

덜레스의 유쾌롭지 못한 회상을 깨뜨리며 뉴델리의 아름다운 거리가 안겨 왔다.

『그래도 례의를 내세우는 동양 나라인 데, 내가 고아를 포도아 땅이라고 했다기로서니 내놓고 푸대접이야…』

비행기를 내리면서 제법 수천 수만 군중을 대하는 식으로 모자를 쳐들어 뒷틀어진 제스츄어를 취하는 데, 어인 일이뇨 방가로로 어느 지방 주재 신임 령사나 맞이하는 듯한 가장 간소한 출영임은!

덜레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나으리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월가의 변호사 시대부터 련마해 온 그의 솜씨, 사공 때 둘러 대듯이 거짓말을 둘러 대는 재조를 한평생 쌓아 온 그로서도 미처 대답하기가 곤난하리만큼 질문들은 날카로웠다. 서뿔리 입을 벌렸다가는 흉악한 승냥이의 이빨이나 들어나게 마련이다.

비행장에서 시내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덜레스는 밖을 내다 보기가 괴로웠다. 얼마 전에 같은 이 길에서 일어났던 일, 뉴쓰 영화에서 본 장면이 덜레스의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았다. 불쉐위크들을 열렬히 환영하여 이 길을 뒤덮고 흥성거리던 백 여 만 군중의 물결이—

불청객의 신세를 깨달은 덜레스는 열대의 태양 아래서 통곬이 싸늘해 짐을 느꼈다.

× × ×

우울한 마음으로 인도를 떠난 덜레스는 싱가포르 상공을 지나 매혹적인 남국의 바다가 활작 열리는 것을 내려다 보고 나서 한잠 자고 난 뒤에는 휘파람까지 나왔다.

『인도네시아에는 류비스 대좌가 있다. 다르올 이스람 무장 부대가 있다. 우리의 잠수 함대는 아직도 서부 이리안 근해에 정박 중이다. 나의 활무대가 바로 여기로다!』

쟈카르타 비행장에 착륙하기 전에 아래를 내려다 본 덜레스는 만면에 희색을 띄였다. 비행장에는 군중이 마중나와 있었다.

『그러면 그렇겠지! 여기가 바로 내 활무대로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여기서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서둘렀다. 그러나 이런 준비는 필요 없었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를 먼저 표명했다. 비행장으로 달려 온 군중들이 든 프랑카드들에는

『식민주의를 반대한다!』

『세아토(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를 타도하라!』

등등의 구호가 씌여 있었다.

× × ×

미국으로 돌아간 덜레스는 텔레비죤 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선전해 왔지만, 아세아 인민들은 서방으로부터의 있을 수 있는 침략을 먼저 생각한다. 왜냐 하면 서방의 통치는 그들이 무엇보다도 실제로 알고 있는 통치이기 때문이다』

서부 독일에서의 민심의 동요

서부 독일 부르죠아 신문 "쥬제이체 쩨이퉁그" 지의 3월 어느 날 신문에는 "서부 동맹에서의 동요"라는 제목 밑에 론설이 발표되였다. 서구라파의 많은 다른 출판물들처럼 이 론설도 서부 렬강들의 정치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부 독일 신문은 "미국에서도 또한 2대 정당에 속해 있는 많은 리지적인 사람들이 덜레스의『힘의 정책』을 결코 가장 현명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랭전』 정책이 인민들에게는 다만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 올 뿐이라는 것을 잘 리해하고 있는 사회 층의 여론을 표현하면서 "쥬제이체 쩨이퉁그"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현재 서부 제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요는 결국 덜레스가 자기의 연설마다에서 진출한 고정된 말투의 결과이다"

"쥬제이체 쩨이퉁그"지가 지적한 것들은 독일 련방 공화국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것이다.

얼마 전만하여도 미국 출판물은 불란서와 이태리같은 나라들에서의 "중립"에 대한 갈망을 비난하면서 서부 독일을 서구라파에 있는 침략 뿔력의 "기둥"으로써 표현하였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미국 정기 출판물들은 다르게 쓰고 있다. 실례로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는 서부 독일 내부에 있어서의 군국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불안한 징조들"을 특기하고 있으며 "서부 독일 하원에 참가하고 있는 세 개의 정당 즉 사회 민주당 자유 민주당 전 독일 동맹은 서부 동맹에 대한 서부 독일의 립장을 변경할 것을 지지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대서양 동맹"의 정책을 위해서는 슬픈 사실들이지만 자백 아니할 수 없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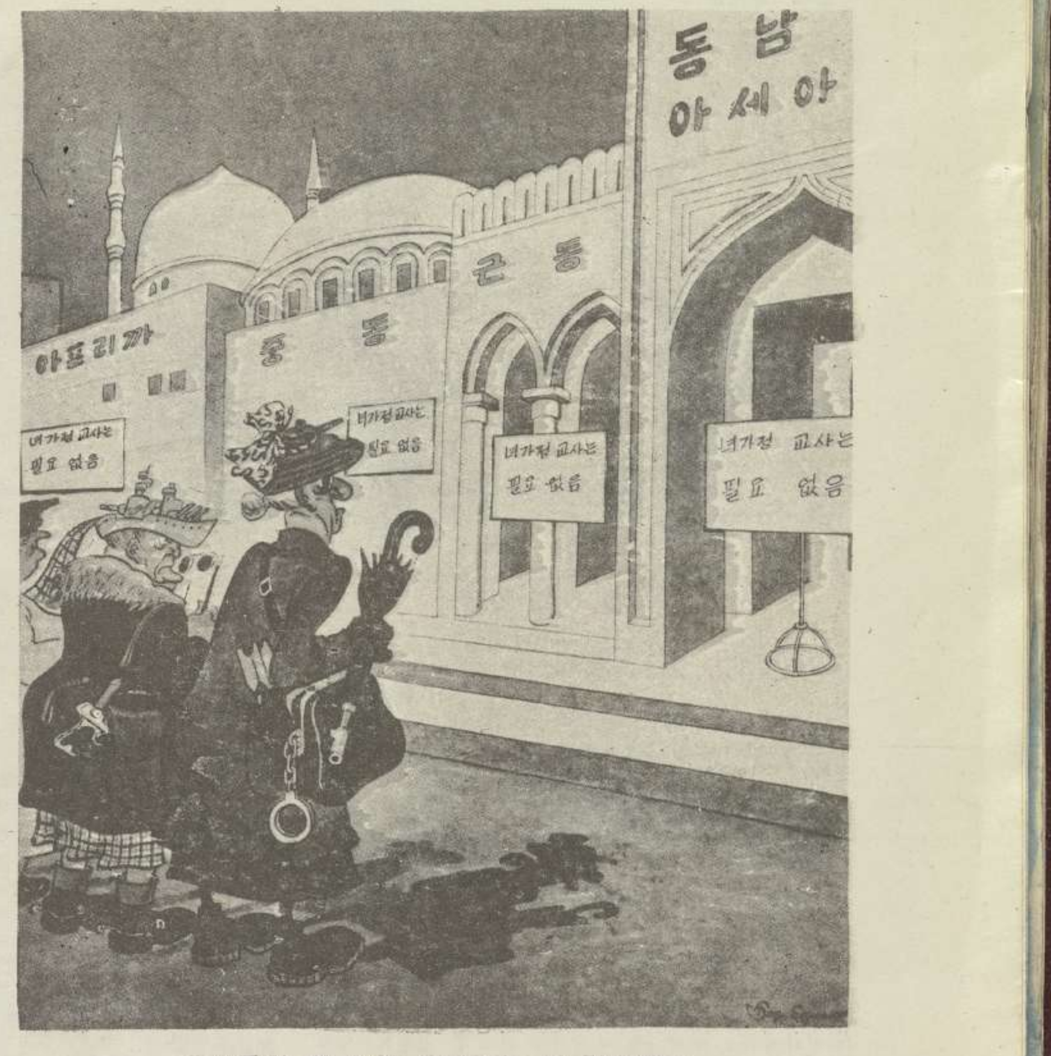
—쏘련 문학 신문에서—

(한 동 신 번역)

КРОКОДИЛ- 쏘련 "끄로꼬질"

식민주의자들 사이에서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6, 1호에서 전재
브·예피모브 그림



—우리들의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국제 유모어 소개

EULENSPIEGEL - 독일 "오이렌스삐겔"

독일 풍자 만화 잡지 "오일렌스삐겔"
1956. 1호, 9호에서 전재
레오 하이스 그림
게오르그 월께 그림

—저것도 실현된다니 불쾌한데!

전체 평화 애호 력량의 선두에는 총 인구 9억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 있다.

—이 자본론은 벌써 나에게 거의 10억의 소득을 가져 왔다!

해명은 필요 없다

씨리야의 알레뽀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꺼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유명한 씨리야 기자가 대표단들과 함께 쏘련을 방문하였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환희에 넘쳐 자기의 려행 인상에 대하여 동지들에게 이야기하였었는데… 어느날 저녁 외따른 골목에서 알지 못할 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3,000폰드의 화폐 구레미를 슬며시 그에게 쥐여 주고 알지 못할 그 사람은 기자에게 성실한 기사 대신에 이미 준비해 둔 중상적인 기사를 발표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자는 더욱 비싼 값을 불렀다. 드디여 가격은 4,000폰드로 되였다. 실지로 중상적인 기사가 신문에 발표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신문에는 "어떻게 하여 내가 4,000폰드를 벌었는가"라는 제목 밑에 모든 이 내용에 대하여 씨리야 기자가 이야기한 기사가 발표되였다.

미국 령사관은 모욕을 느꼈기 때문에 기자를 기소했다. 그런데 기자는 재판 석상에서 그가 받은 그 화폐들은 바로 그 날에 그 령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은행에서 찾아 간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다.

전체 알레뽀시가 비웃고 있는 이야기꺼리는 이러하다.

—오스트라리야 신문에서—

대중 정치 공작 없는 사업

최영근 그림

해설 없는 명령 설복 없는 독촉 성과 없는 결과

잠자는 거북

평산군 한포리에 들어선 "활살"은 코 고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옛날에는 토끼가 잠을 자다 거북보다 뒤떨어졌다고 하더니만 여기서는 거북이 잠들어 있었다. 한포리는 작년도에 곡물 생산이 락후하였었기 때문에 거북의 칭호를 받았는데, 게다가 지금 잠까지 자고 있는 것이다.

한포리에서는 금년도 자급 비료 생산 계획이 7,780톤인데 대하여 2월말 현재로 4%도 채 못되는 272톤을 생산했으며 춘경에 절대 필요한 보습이 41개인 데 2월말까지에 확보한 것이 겨우 24개—

그런가 하면 리 내 농민들에게 옥수수를 심을 데 대한 선전 공작이 아주 불충분했다. 이 리에는 선전망 체계부터가 없다.

"활살"은 평산군 인민 위원회 선전부를 찾아갔다. 선전부장은 없었기 때문에 강사 안 종문 동무를 만나 다음과 같은 일문 일답을 했다.

『농산이 가장 락후한 리는 어딥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농업 현물세 개정에 대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리해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1월에 선전실장을 모아 놓고 쎄미날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침투되고 있으며 어떤 반영들이 있습니까?』

『총화를 하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활살"은 그와 헤여졌다가 두어 시간 후에 다시 만났다.

『어느 리가 농산에서 가장 락후한지 알아 보셨나요?』

『선동원 동무가 와야 알겠습니다』

『군 내의 자급 비료 생산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급 비료요?』 강사 동무는 눈을 끔벅이며 잠시 앉아 있더니 『한 60% 생산됐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건 되는대로 대답한 거짓말이고 사실은 2월말 현재로 19%에 불과하다.

이 강사 동무는 선전실장들을 모아 놓고 우에서 내려온 제강을 그대로 읽어 주는 것으로 자기 직무는 다한 줄 알고 있다. 농산에 대한건 농산부에서나 알 일이지 선전부에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

그러면 선전부장 홍 의중 동무는 어디 가 있는가? 장기 출장 중이였다. 그가 장기 출장의 목표로 선정한 리는 군 내에서 모든 성적이 그리 나쁘지 않은 리였다. 말하자면 그가 장기 지도를 안해도 성적이 그리 나쁘지 않을 리를 선택하여 오래 눌어붙어 있었다. 락후한 리로 나가면 머리만 아프겠으니까…

"활살"은 농산부로 갔다. 그런데 농산 지도원은 금년도 옥수수 생산 계획 과제가 언제 내려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 계획 과제는 물론 조선말로 씌여서 하달되였고 또 이 지도원 동무는 물론 문맹일 리는 만무하건만 모르고 있다.

그런 반면에 여기 농산부 일군들의 공명주의는 아주 『예견성』있게 일할 때도 있다. 2월말 현재로 자급 비료 생산이 19%이건만 앞으로 24%로 올라갈 날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도에 보고할 때는 24%로 해두었다.

또 작년 봄에는 앞으로 날이 따뜻해 질 것을『예견』하고 아직도 땅이 채 녹기도 전에 뽕나무를 심어서 20만 본이나 얼어 죽게 하였다.

작년에도 농산 계획을 미달한 평산군 인민 위원회 일군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다. 평산군이 지금은 황해북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정문에는 아직도 『황해도 평산군 인민 위원회』라고 붙어 있다. 군 인민 위원장 동무는 하부 일군들의 잠을 깨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보다도 위원장 자신이 잠을 깨야 할 때가 아닌가?

유 항림

백인균 그림

모양 좋고 즐겁게

—옷이나 갈아 입고 나오소

—짐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군요

안창수 그림

저만이 아는 일 저만이 몰랐던 일

유 항림

덕보는 령리하게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해 왔었다. 그는 리해 타산이 밝은 농민이였다.

동네에서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였을 때도 덕보는 두 달을 두고 궁리 궁리했었다. 벼라별 리해 타산을 다해 보았던 것이다.

그가 조합에 들겠다고 결심하게 된 데는 여러가지로 정당한 리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조합원들과는 좀 색 다르게 생각하는 바도 없지 않았다. 자기 혼자서 농사 지을 때야 왼 손이 조금 리롭기로서니 무슨 소용이랴 바른 손이 그만큼 미찌는 셈이니, 그러나 여럿이 하는 조합 농사에는 역시 옴폭한 수도 있으리라 타산했던 것이다.

봄이 되여 논 밭으로 퇴비를 낼 때, 덕보는 자기의 이런 은근한 타산이 옳았다고 흡족히 생각했다. 다른 조합원들이 각기 집에서 생산된 퇴비를 조합 논 밭으로 깡그리 내는 것을 본 그는 고지식한 일이라고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다.

덕보는 퇴비 중에서 제일 진 구비만은 전부 자기네 터밭에다 퍼붓고서, 속으로는 씨물씨물 웃고 있었다. 터밭에 이렇게 많은 구비를 내 보기는 처음이다.

논갈이를 할 때도 이런『령리한』수단으로 일했다. 조합 소로 조합 논을 가는 데 내 잠방이를 적실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소 잔등에 올라 타고 점잖게 앉아서 논을 갈았고 써레질도 했다.

그래서 잠방이는 젖지 않았지만 작업 능률은 오르지 않았고 소는 갑절이나 빨리 피로했고 차츰 여위더니 끝내 논 가운데 씨근덕거리며 뚝 뻗치고 서서 자구를 떼려고 하지 않는 때가 많아지게 되였다.

송봉남 그림

일은 꾸몄건만… 꿈은 깨졌고나!

그는 또 한번 령리하게 행동해 보려고 했다. 잘 먹이고 적당히 부려 오는 다른 소와 바꿔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구변은 전보다 못해지지 않았건만 아무도 그의 꾀에 넘어가지가 않았다.

자기의 리해 타산이 빗나가는 것을 본 그는 많은 희망을 터밭에 걸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 했다. 사실 터밭에서 감자는 그의 욕심만큼이나 기운차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좋은 날에는 터밭에서 일했고 궂은 날에는 조합 일에 나섰다. 그러고 보니 궂은 날에 충분한 작업을 할 수 없는건 뻔한 일이여서 로력 점수는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뜻 밖의 일은 터밭의 감자가 그의 예상과 같이 되지 않은 일이다.

욕심 사납게 구비를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키는 자라고 자라서 가슴노리까지 올라오고 잎은 탐스럽게 무성했지만 커라 커라 하는 감자만은 크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한참 속상한 판에 놀부 같은 욕심에 감자까지 망쳐 놓았다고 웃음꺼리까지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덕보는 로력 점수를 많이 벌어야겠다고 서둘으기 시작했다. 발김 매기에서 그는 처음 얼마 동안 작업 실적이 꽤 좋았다. 그런데 그의 김 매는 본새가 같은 작업반 안의 조합원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총감투에 먹칠하듯 의삽촌의 벌초하듯 호미로 흙이나 슬쩍 덮어 나아갈 뿐 풀은 채 뽑지 않고 대강 자세히 배 나아가는 것이다.

작업반원들의 비판이 집중되였을 뿐만 아니라, 반장은 그가 김 매여 나아간 자리를 눈여겨 보게 되였고, 그가 눈 얼림으로 대강 자세히 맨 곳은 다시 매게 하였다.

덕보가 이렇게 한 해 농사를 했기 때문에, 그의 작업반 성적에도 영향을 주었고, 덕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반원들의 수확 분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남보다 갑절이나 두터운 그의 욕심과는 반대로 그는 남보다 적은 분배를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가 영 싫여한 비판만은 톡톡히 받은 셈이 되였다. 그러나 이 한 해는 그에게 헛된 해는 아니였다. 협동 조합은 그의 학교였다. 그는 이 한 해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자기가 저혼자만 뒷속을 알거니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고 남들이 다 아는 것을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덕보는 이제야 알게 되였다. 왼 팔이 바른 팔을 속이는 것이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 농민이 조합을 속이려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

주체 모르는 주인

백인균 그림

—책이 많으신 데 조선 력사에 관한 책을 한 권 빌려 주십시오
—허허 내게는 그런 책이 한 권도 없는 데…

일부 일군들 중에는 우리 조국의 력사, 지리, 민족 문화, 민족적 풍습 등을 깊이 연구할 대신 도리여 이를 홀시하는 그릇된 경향이 있다.

최영근 그림

로력랑비의 이모저모

두 벌 공 사

『급선 문제는 로력 절약이야… 강물에 잔토를 흘러 내리게 하면 잔토 정리에 많은 로력이 절약될 것이요』강호 관개 공사장의 도 트레스트 기사장 차 석철 동무의 말이다。

그러나 강물의 류속은 1만 6천 립방메터의 흙을 씻어 내릴 속도가 못되였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로동자들은

『공연히 두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하고 걱정하는데 기사장은 아무런 기술적 타산도 없이 무턱대고 로력 절약이라 하면서 그냥 공사를 진행케 하였다。

잔토는 절반 이상 운반되였으나 강물의 류속이 느린데서 잔토는 씻어 내려가지 않았다。

이때도 로동자들은

『기사장 동무 흙을 다시 파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하고 제기했으나

『일 없어 조금씩은 흘러 내릴 것이요』하고 기사장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드디여 잔토 전량은 운반되였다。 그러나 흙은 씻어 내려 가기는커녕 강물이 몰아 온 흙까지 덮쳐서 적은 동산을 이루고야 말았다。

이리하여 계획에도 없던 배토 작업까지 두벌 공사를 하게되여 무려 5천 백 여 명의 로력이 랑비되였다。

× × ×

또한 이 관개 공사 사업소에서는 배천군 소재지에서 직선 거리로는 2키로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하게 되였는데 이미 있는 자동차 도로로는 멀리 돌아서 오다보니 12키로나 되였다。 관개 공사 지도 위원회에서는 공사에 대량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들을 계속 운반하기 위해서는 2키로의 거리 밖에 안되는 새 도로를 닦는 것이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 절약이 되니 도로를 새로 부설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소 지도 일군들은

『언제 새로 길을 닦아… 괘히 로력 랑비를 하고 땀 흘리고… 그새면 좋은 도로로 빨랑 빨랑 자재들을 운반하지』하고 듣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만 해도 많은 연료와 수송비만을 랑비하고 그에 따르는 로력도 랑비…

그들은 새로 길을 닦는 것이 얼른 보기에는 힘 들고 로력이 랑비될 것 같애 그냥 12키로의 길로 다니였으나 결국 힘들고 로력은 몇곱 더 들었다。

원인은 ?

건설성 제3 관리국 6트레스트에서는 지난 3월 13일 건축 공사의 미장 작업에 100 여 명이나 로동자들을 동원시켰다。그런데…

『아니? 저 높은데 어떻게 흙을 발라…』

『그래도 발라야지…』

『내 키가 9척이면 몰라두 기껏해야 다섯자 다섯치니 유감일세…』

『허허 난 허공에 둥둥 떠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일세…』

『그런 소린 집어 치우고 빨리 작업을 해야 할텐데…』

이것은 로동자들의 말

아침 일찍 동원된 그들은 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결국 50명은 다른 작업에 착수하고 50명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나무를 자르고 못을 치면서 발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후부터서야 겨우 일에 착수했다。

그 원인은? 트레스트 지도 일군들이 미장 발판을 준비는 안해 놓고 미장반 로동자들만 동원시켰기 때문이라는 바 작업 조건은 지어 주지 않고 덮어 놓고 "빨리 해라!" 는 식으로 로동자들만 몰아대는 주먹치기 사업 방법이라고 할 수 밖에…

장 필 순

부지 하세월

최영근 그림

—합리적인 제의를 받아 주시요
—기왕 들어 온 제의들도 그냥 있소 좀 기다리시요

황북 16트레스트의 안 현기는 로력을 4명 절약하고 능률을 50%나 높일 수 있는 마루널 가공기를 창안하여 작년 10월에 창의 고안 꼼미샤에 제출하였으나 아직도 심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리영춘 그림

탐조등

무시된 규정

홍남 비료 공장 변류 직장에서 있은 일—

로동자들에게는 일주일 간에 걸쳐 열두 시간 동안 안전 조작법을 교양 주어야 하도록 규정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을 주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

『전 달에 들어 온 김 동무한테도 로동 보호 물자를 타 줘야겠는데요…』

『암 타 줘야지』

『안전 교양카드에 확인이 있어야 보호 물자를 타지 않습니까!』

『그쯤 문제 없지』

그리하여 카드에는 안전 교양을 주었다고 미연에 확인을 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교양 카드가 아니라 물자를 타기 위한 카드로 생각하는 모양—

중요한 것은 빼놓고

홍남 화학전문 학교에서는 외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염산 제조법들은 여러가지로 배워 주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본궁 화학 공장에서 실지로 염산을 제조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전혀 배워 주지 않고 있다。

외국의 공장들로 보낼 기술 일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라 공장들을 위한 기술 일군을 양성해야 한다는 임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섯번 거치는 절차

청진 우편국에서는 전보 한 통을 치자면 여섯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거짓말 같으나 사실… 처음 접수에 가서

『전보 한 통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출납에 가서 용지를 사 오시요』

그래 용지를 사다가 전문을 써서 접수에 들어미니 접수원은 종이 쪽지에 료금을 써서 내여 준다。

『돈 안 받습니까?』

말이 떨어지기도 바쁘게 냉큼

『돈은 출납에 가서 내세요』

출납에 가서 돈을 문 다음 령수증을 달라고 하자

출납원은 아무 대꾸도 없이 용지에 도장을 국 눌러 내여 준다。 그래 도장 찍힌 종이를 받아 쥐고 가려고 밖으로 나간다。

『동무 동무 령수증을 받아 가세요』

출납원의 째진 목소리다。

『아니… 령수증은 주지 않았소?』

『아이구 답답해라 아까 그 도장은 출납에서 돈 받았다는 도장이고 그걸 가지고 접수에 다시 가면 령수증을 줘요 동무는 전보를 처음 쳐 보았나봐…』

『전보 한 통 치는 데、왜 이리 복잡하우?』

『사고 방지를 위해 한달째 이렇게 제도를 세웠어요』

이렇게 되여 되로 들어가 령수증을 받고 나니 결국 여섯번의 절차를 거쳐서야 전보 한 통을 친 셈이다。 사실 여섯번 절차를 거쳐야만 전보를 치게 되는 일은 청진 우편국에서 처음…

록음실

무관심도 이만 저만

강 정수 동무가 지도하는 철도 건설 사업소 지도 일군들은 로동자 합숙을 문화적으로 운영할 데 대하여는 아주 무관심하다。

당과 정부에서 지어준 조건과 상부의 지시를 무책임하게 리행한 데서 합숙 건설을 제때 보장 못한 결과는 좁은 합숙에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거기에 또 식당마저 없어 침실에서 식사까지 하게 되니 더욱 복잡하다。

제2호 합숙의 식사실은 이달에 지어 준다 래달에 지어 준다 하면서도 아직 지어 주지 않고 있으며 1호 합숙에 있다는 식사실은 겨울 동안은 난방 장치가 안되여 쓰지 못하고 여름 한동안은 비가 줄줄 새여 쓰지 못하여 있으나 마나 한 형편이니 지도 일군들의 무책임이야 말로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는 일

비온 뒤도 아니건만 언제나 흙진창 물탕과 여기 저기 석탄재가 쌓여 있는 여기가 바로 금속 공인성 합숙 출입구다。

성 청사에서 가까운 이 합숙은 출입구 뿐만 아니라 마당 안에도 많은 오물이 쌓이다 못해 도로에까지 밀려 내리고 있다。

이 수북한 오물을 보기가 딱해서 보건부 일군들이 수차에 걸쳐 제때에 정리하라고 하면『시간이 없다』는 구실로써 때우고 만다는 바 춘기 위생 방역 사업에 도대체 관심이 있는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산하 일군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려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멀어서…

신리동 사무실 문 앞에는 오물 데미를 형성하고 있으며 거리 주변도 너저분한 때가 많다。또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세탁한 구정물 때문에 어느 수도 주변이라 할 것 없이 대개 질쩍거린다。

그래도 동 사무소 위생 지도원 윤 기형 동무는『오물장이 멀어서…』『강이 멀어서…』하고 변명만 하면서 위생 검병 사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민반 위생 담당자들과의 사업상 련계도 확실히 먼 모양…

『실행은 않고』

마당이 오물장인지 오물장이 마당인지 분간하기 곤난하고 그런가 하면 퇴비사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마당 옆에서 있는 게시판 밑에 고여든다。

그런데 게시판에는 깨끗한 종이에 정성 드려 쓴 글씨로

"해빙기를 앞두고 청소 사업을 강화하자!"라고…

또한 사무실 안도 그리 잘 청소되여 있지 않다。 벽이며 마루바닥이며 책상 우에며 깨끗하다고는 하기 어렵다。 다만 깨끗한 것이 눈에 유별나게 띠우는 것은 한 쪽 벽에 걸려 있는 출근부다。 그런데 이 깨끗한 출근부에는 곡절이 있다。서기장은 10시쯤 나오고 위원장은 열한시쯤 나와서 사무를 보기 시작한다。출근 도장은 월말에 가서 단꺼번에 찍다보니 출근부는 정초에 만들어 놓은 후 지금까지 세번 그들의 손때가 묻었을 뿐…

그러니 경성군 독연리 인민 위원회 사무실에는 유별나게 깨끗한 것이 눈에 띠우는 것은 표어와 출근부 뿐이라고…

청 소 평

원광수 그림

황해 제철소 벽보에서

국가 재산에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제 철 소 부기실 일부 일군들은 공장 울타리로 출입하고 있다。

황해북도 내 일부 지역들에서는 각 리 선전실의 미화 공작과 지어는 벽보까지가 한사람의 직업적인 "화공"에 의하여 "청부식"으로 진행되는 현상이 있다。그래서 대개 비슷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벽보들이 많으며 자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고 만다。 때문에 이런 경향을 시급히 퇴치하고 실제적인 대중 문화 공작으로서의 벽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송용남 그림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호 서 만 일 신 불 출 리 갑 기 정 현 웅
발행소 활살(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소 미술인쇄공장
인쇄 1956. 4. 10. ㄱ—40093 발행 1956. 4. 15. (값 50원)

장진광 그림

리 승만 역도는 7월에 실시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를 2개월 앞당겨서 5월 15일에 실시한다고 공격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하여 야당파들의 선거 운동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